

마을술사와 함께하는 '마을여행'

전주시·전주문화재단, 시범운영 나서

함께 걸으며 해설 듣는 프로그램 운영

올해 추가 시범사업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

전주시가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마을술사와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내년부터 '마을술사' 양성과정을 통해 개발한 마을 탐방 코스를 마을술사와 함께 걸으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전주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술사는 마을을 기록하고, 해설하며, 발견을 제안하는 주체로, 시와 전주문화재단은 각 동별 콘텐츠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술사를 양성해 왔다.

'전주 마을여행'은 시와 전주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4년간 '동심(洞心)찾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각 동의 역사와 생태, 문화자원 등에 대한 문

헌조사와 마을에 대한 기억을 구술 채록해 완성한 결과물인 '마을조사서'를 활용한 사업으로, 곳곳에 숨겨진 우리 동네 명소를 직접 방문하고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내년도 본격 운영에 앞서 올해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 권역을 포함한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마을여행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술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맞춤형 코스를 추가 개발하는 등 마을여행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주교육지원청의 전주 혁신교육특구 사업과 연계해 마을술사와 함께 우리 마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교사를 대상으로 마을탐방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학생들도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16일 '미래유산과 함께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를 주제로 대학생 10여명과 함께 제1차 마을여행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16일 '미래유산과 함께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를 주제로 대학생 10여명과 함께 제1차 마을여행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풍남문에서 출발

해 행원, 고물자 골목, 고미술거리, 전주 차이나타운, 서문교회를 지나 다가공원까지 함께 걸으며 전주 구도심의 흔적과 가치를 경험했다. 또 다가공원에서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를 낭송하면서 걸어가는 가을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내년 4월까지

빙상경기장 환경개선 실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이달 초 지붕 보수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지상링크장 시설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빙상경기장은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목적으로 건설된 노후 시설로 이용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사를 진행한다.

총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상링크장의 빙면과 대시보드, 조명 등을 전면 교체하고, 지붕 누수 및 방수 등에 관한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제대회를 유치했던 시설로서 국제경기 규격에 맞춰 정빙기와 음향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공사를 진행한다. 지상링크장은 현재 공사로 인해 휴장 중이다. 지하링크장은 공사 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상링크장과 연계된 공사에 따른 일시적 휴장 가능성도 있다.

전성환 이사장은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도시재생현안조사

청원 현장견학 실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19 도시재생현안조사 행사에 문화와 사람중심의 전주형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아이디어를 얻고자 신규 직원을 포함한 직원 25명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공약사항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동향 및 국내·외 우수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도시재생현안조사 행사는 올해로 5회째이다.

완산구 청원들은 도시재생 홍보관, 전시체험관 등 75개소 홍보부스 및 도시재생설명회 참관으로 도시재생의 정책사와 국내·외 주요 추진사례 등을 공부한 후 인도심 골목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나후된 순천시 구도심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공동체회복 등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도시재생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상 기자



'꽃 빠는 나비'

나비 한마리가 지난 25일 익산중양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6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장에서 꿀을 빨며 가을을 즐기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 SW서비스 개발 착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오늘 지원과제 설명회 마련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SW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은 오늘 진흥원에서 지역 SW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서비스 개발사업' 지원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SW서비스 개발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북지역 SW·ICT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R&D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SW서비스 기술 기반 편의 제공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제로 3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진흥원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도 SW·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SW서비스 개발사업' 지원 과제를 소개하고, 신청 절차와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SW서비스 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이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ca.or.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내년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SW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서문산성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SW융합을 통한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확대 등 지역 SW·ICT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W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문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41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우리 아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전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도민 특강

전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도 및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지난 26일 전라북도 어린이집의체협관에서 '우리 아이 건강하고 튼튼하게!'라는 주제로 도민 특강 및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전북도 어린이집의체협관을 찾은 어린이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강과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마련했다.

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의 '올바른 성장(성조숙증)',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조대선 교수의 '예방접종 바로알기'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고, 야외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체현(손오염도 측정, 표면오염 확인), 올바른 기침예절,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수칙 알기 등의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한옥마을에 울려 퍼진 우리 소리

전주시, 소리문화관서 '완창 판소리 다섯바탕 유파 대제전'

국내 최고 명창들이 선보이는 판소리와 흥이 전주한옥마을에 울려 퍼졌다.

전주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소리문화관에서 '판소리 다섯바탕 유파별 완창 공연'을 개최했다. 판소리 다섯바탕의 각 유파별 완창 공연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에는 △권하경, 방수미, 지선화(이상 심청가) △정옥향, 김소영, 이난초, 주소연, 유하영(이상 수궁가) △박정선, 윤진철, 김경호(이상 적벽가) △전예주, 천희심, 정상희(이상 흥보가) △송재영, 전인삼, 박성희, 김나영, 서정민(이상 춘향가) 등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를 비롯한 19명의 명창과 8명의 명고수(조유안, 이상호, 임현빈, 한수산, 고정훈, 권학대, 박종훈, 김태영) 등이 대거 참여해 판소리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공연은 △보성제 △동초제 △박동실제 △미산제 △정광수제 △동편제 △송판제 △박록수제 △김세종제 △민정제 등 판소리 전승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각 유파별 고유의 특징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3일간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시작돼 전주한옥마을로 옮겨 퍼진 판소리 다섯바탕은 시민과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우리 소리의 흥과 가락에 취하는 시간을 선사하기도 했다. 주말을 이용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한 여행객은 "모처럼 찾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평소 접할 수 없는 판소리 유파별 공연을 듣게 된 것은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면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공연을 보러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관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판소리의 분향 전주에서 전국 최초의 판소리 다섯바탕 유파별 공연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판소리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대중화 소통하며 소리의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소리 다섯바탕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돼 있으며, 시는 판소리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해 매년 판소리 완창무대를 개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지역경제 버팀목' 중기 기 살리기

전주중기연합회, 전주역 앞 첫마중길서 노사화합마당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나선 전주시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는 축제를 열었다.

전주시와 (사)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회장 임동욱)는 지난 26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전주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및 노사화합마당'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장에서는 전주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바이전주 GOGO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누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즐겁고 여유러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시장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사를 준비한 만큼, 전주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바이전주 GOGO페스티벌 △한복모델 선발대회 △근로자 노래자랑 등 정기간 대회 △초대거수 초청공연 △경품추첨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박람회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홍보부스가 마련돼 88개 업체가 110개 부스에서 지역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판매를 진행했다.

홍보부스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전주시가 인증한 우수중소기업의 제품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장에서는 전주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바이전주 GOGO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행사를 주관한 임동욱 (사)전주시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이번 축제는 경기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사를 준비한 만큼, 전주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및 노사화합마당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은 전주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시티가든 조성 네번째 주민화합 잔치

성매대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중인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 한복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동네잔치가 열렸다.

전주시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는 지난 25일 서노송예술촌 중앙에 위치한 시티가든(지역의 공간)에서 선미촌 인근 노송동 주민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송동 주민 동네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미촌의 변화와 발달취선미촌 및 인근 주민들에게 공동체를 되살려 오랜 시간 훼손당했던 주거공간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선미촌을 원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4회째를 맞이한 이날 노송동 주민 동네잔치에서는 노송동 주민들을 위한 점심식사 나눔, 하모니카 연주, 프크송 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시는 이날 마을잔치에 앞서 선미촌 현장시청 6호점에서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와 함께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주민 주도형 참여로 변화된 선미촌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 전주시와 민간단체가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매대집결지였던 선미촌을 강제철거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문화재생을 통해 도시공간의 기능을 바꿔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점진적 재생한다는 목표 아래 △성광동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분야에 참여해 성매대 집결지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로 인증을 받게 됐다.

김성수 시 도시재생과장은 "전주시와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느덧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동네잔치가 공동체식을 공고히 하여 마을과 주민공동체를 복원하고 선미촌의 슬픈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